

KPPO News

Korean Parents Partnership Organization
 Email : bcakppo@gmail.com

KPPO 소식

♣ 가을 총회



9월 22일 (화) 한국 학부모회 (KPPO) 2015-16 정기총회가 학교 2층 카페테리아에서 있었습니다. 새학기 처음으로 열린 KPPO 정기총회에 9학년 및 재학생 학부모 6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학교 교장이신 Mr. Davis의 전반적인 학교 안내와 각종 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PPO (학교전체학부모회) 부회장인 Julia Chiang이 대표로 참석해 PPO 활동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인교사로, 민미영(미술), 김덕양(화학과), Rosalyn Kim(역사), Minghua Xu(중국어) 선생님들이 참석하셔서 KPPO에 대한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 정기모임



KPPO는 매월 주제를 정해 전체 모임을 가집니다. 첫 정기모임은 9월 29일 동방그릴에서 열렸습니다. 모임에서는 학교 행사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자녀의 학교 성적관리 프로그램인

Power School, Naviance, Schoology, 결석 Policy 등 여러가지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여 신입생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인사의 말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새학년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것은 아이들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다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부모님들의 참여로 KPPO 첫 총회 및 두번의 정기모임, Open House, International tasting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PPO 회장 한은영 드림



♣ 11월 정기모임 세미나

I. 대학 진학 및 학자금

11월 정기모임은 강은희 강사를 모시고 '대학 진학과 학자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 이 학자금 보조에 대해 바른 지식과 정보를 갖는 일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에서는 대학교육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재정문제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각 대학의 재정담당자들과 협조하여 필요한 재정을 적극 보조해 줍니다.

학자금보조 신청을 자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는 것을 단순히 FAFSA나 CSS Profile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사업체를 시작할 때, 집을 구매할 때 등 학자금보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학자금 재정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준비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II. 학자금보조의 종류

1. Grant/Scholarship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는 'Gift Money'로, 연방, 주정부 그리고 대학으로부터 주어집니다. Financial Aid Package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2. Student Loan

저렴한 이자율로 주어지는 학비 융자 (Loan)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이자가 전혀 부가되지 않는 Subsidized Loan이며 대학을 졸업하고 6개월 후부터 갚기 시작합니다.

3. Work-Study

근로장학(Work-study)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빠앗기는 단점이 있지만 경력을 중히 여기는 미국사회에서는 경력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므로 장려할 만한 Program입니다.

위에 언급된 학자금보조는 모두 Need base입니다. 대학에 따라 학생의 능력에 의해 주어지는 Merit Scholarship이 추가되어 지급되기도 합니다.

III. 학자금보조 신청방법

1. FAFSA

신청은 12학년 1학기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연방정부의 마감일은 그 이듬해 6월 30일 까지입니다. 주 정부의 마감일은 각 주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CSS Profile

CSS PROFILE은 College Board에서 관장하며 미 전국 600 여개의 사립대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립대학들은 학교 자체 Fund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는 이 양식에 의거하여 산출합니다. 보통 사립대학의 보조금액이 정부의 보조금액보다 훨씬 많으므로 이 양식을 요구하는 대학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College Application

주립대의 경우는 FAFSA만 제출하면 되지만 사립대의 경우는 천차만별입니다. 대학에 따라 FAFSA, CSS PROFILE, College Application 중 1-3개 모두를 요구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IV. 학자금보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첫째, "학자금보조는 Merit (재능, 성적)에 근거한다." 이러한 소문 때문에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자금보조는 Need-base(재정문제)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입이 많고 재산이 넉넉한 가정에서는 아예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없다."

대학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수입의 가정에서 이를 충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Netprice calculator'를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netpricecalculator.collegeboard.org/>

셋째,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면 입학에 불리하다." Need blind 학교에 지원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로, Need aware 학교 지원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학자금보조 신청은 대학입학이 정해진 후에 한다."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해당 대학에 모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합격된 그 대학에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는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격통지가 올 때 그 학교의 학비와 학자금보조 내역이 함께 통보되어 옵니다.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유익한 website 안내

- ✓ <http://www.fastweb.com/>
- ✓ <https://www.scholarships.com/>
- ✓ <http://www.discoveryourpersonality.com/>

PPO소식

♣ 신입생 Potluck Dinner

매년 버겐 아카데미를 새로이 입학한 신입생들과 가족들을 위한 Freshmen Potluck Dinner 가 10월 14일 수요일 저녁 버겐 아카데미 2층 카페테리아에서 장소를 가득 메우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풍성히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에서 신입생들과 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KPPO의 신입생 가족들과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여 인사를 나누었고 KPPO 신입생 어머님들이 셋업, 음식 써빙, 뒷정리까지 봉사하는 모습에 KPPO가 학교 중요 이벤트를 늘리는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역사 교사 Ms. Blake 와 카운슬러 Ms. Redlitz 도 참석하셔서 부모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경품, 탁구, 게임 등의 행사로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 Main Office : ☎ 201-343-6000

결석시 ext. 2226, Nurse ext. 2254

❖ 버겐아카데미

<http://bcts.bergen.org/index.php/bergen-county-academies>

❖ BCA PPO

<http://www.academypopo.com/>

❖ KPPO

<http://www.academypopo.com/kppo.html>

❖ Naviance

<https://connection.naviance.com/family-connection/auth/login/?hsid=bca>

❖ Power School

<https://ps01.bergen.org/public/>

♣ 인터네셔널 테이스팅 데이

10월10일(토요일, 6PM) 1층 체육관에서 인터네셔널 테이스팅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나라의 다양한 음식 뿐만 아니라 문화를 알리는 의상 및 소품들을 전시하고 체험하면서 친선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맛보는 중동지역의 음식이나 친근한 유럽 그리고 중국음식까지 다양함을 만끽한 행사였습니다.



특히, KPPO에서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음식 후원으로 불고기, 잡채, 호박전,떡볶이, 닭강정 그리고 비빔밥 등 다채로운 음식을 제공하였고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청사초롱과 장승, 그리고 태극문양 배경에 한복입어보기 코너를 마련하여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어 즐거운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 도네이션, 테이블 세팅, 음식 서빙 및 여러가지 한국 전통 소품 전시 등으로 행사를 빛내주신 모든 KPPO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체험을 할 수 있을런지 기대해 봅니다.



♣ 오픈하우스

10월 18, 25일 11월 1일에 2016년 BCA 지원을 하고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학교를 소개하는 Open House 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학교 전반 및 아카데미별로 투어를 하며 꿈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KPPO 도 전반적인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며 행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봉사하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안사를 전합니다.

학교 소식

♣ BCA News



- BCA가 2015년에도 Blue Ribbon School 로 선정되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수상식에서 교육감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ttitude is Everything' 라는 제목의 연설로 BCA가 추구하는 올해의 모토를 피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Newsweek Magazine 에서 미국내 27,000여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평가 결과 미국 내 5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사 자질, 리서치내용, 선택 과목 다양성과 질, 국제 교류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BCA의 이러한 교육이념과 과정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뉴스위크지에서 제대로 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최고 리서치 부분 대회로 인정되는 인텔 과학 재능 발굴 Intel Science Talent Search 연구 대회에서 6년 연속 최종 리스트에 포함되어 학교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 2015년 두 명의 BCA 학생이 Intel Science Talent Search와 함께 명망높은 Siemens 연구대회 준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한명은 수학 부문에서, 한명은 골밀도 증가에 대한 연구로 진출하였습니다.
- 2015년 BCA 12학년인 Ryan Alweis학생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태국에서 개최된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는 미국에서 총 6명이 초청되어 참가하였는데, BCA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미국이 최고 성적을 올린 것은 24년 만에 얻은 쾌거입니다.
- 수학부문 - Director of Academic Competitions National Assessment and Testing 이 BCA가 2015년 가을 스타트업 이벤트에서 1 위, 팀 스크램블에서 3위를 차지하는 실력을 보여 국내 최고의 수학자를 보유한 학교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 Niche.com에서 학생 문화, 다양성, 교사, 자원 및 시설, 다양한 교과 외 과정 및 활동 등을 고려한 교육의 질을 기본으로 하여 미국내 최고학교중 하나(Best in the United States)로 선정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 BCA 타이타늄 나이트 Frist Robotics Team이 미국 First Robotics Committee에 신청한 \$4,000 장학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팀의 대회 등록비, 2016년 FRC 대회에 필요한 부품비에 직접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 지난 주말 4명의 BCA Academy for Technology Computer Science(ATCS)학생이 대학생들과 경쟁하여 hackRPI로 부터 오픈소스 툴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앱을 만들어 수상하였습니다.
- Just Poetry Awards 시 부분 작문에서 수상자: Rachael Han, 주제부분수상 Christina Chong, 전국 우승, \$500 장학금을 위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 BCA Emma Bruder, Stephanie Xu, Alan Xing and Janet Lee (2016) the All-National Orchestra and Concert Band in Nashville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연주는 미전역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적과 심사를 통해 선발된 멤버들과 함께 Grand Ole Opry에서 연주하였습니다.
- BCA Model UN Team이 뉴욕 및 뉴저지 여러곳에서 열린 Model UN대회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2016 봄 학교 주요행사

2015-16 상반기 학교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반기 주요 학교 행사를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입학시험: 1/9(토), 10(일)
- ✓ PPO Picnic:
5/21/2016 (토) 1 pm - 4 pm
- ✓ Staff Appreciation Lunch:
5/25/2016 (수) 11 am - 1 pm
- ✓ Field Day: 미정

PPO General Meeting 안내

1월 13일 (수) 7 pm
"Summer Opportunities Fair"
2월 2일 (화) 7 pm
3월 9일 (수) 7 pm
5월 2일 (월) 7 pm

♣ 하반기 KPPO 모임 안내

✓ 2월: 2/3/2016 7:00PM

김덕양 박사 (BCA 화학과)
"Looking Beyond BCA"

✓ 4월: 날짜 미정

정정숙 박사 (Family Touch 소장)

신문팀 새얼굴

2015-16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신문팀은 두명의 9학년 새식구를 맞이했습니다!!

- Frederick Choi (AEDT)의 어머니 고숙경
- Ciyoon Kim (AAST) 어머니 안정아

♣ KPPO학년모임

➢ 9학년 모임

9학년 대표를 맡게 된 김상은 입니다 (Jeremy Kim, AAST).

"버겐 아카데미에 아이가 들어온 것도 감사한데, 아이와 함께 저도 KPPO에 참여해 좋은 어머님들을 만나고 알게되어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매달 KPPO 9학년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많은 9학년 어머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학년 어머님들을 도와 KPPO와 학교에 힘이 되고 또한 서로에게도 격려가 되는 멋진 한 해를 기대합니다".



- 10학년 모임: 매월 4째 화요일
- 11학년 모임:매월 3째 월요일
- 12학년 모임: 매월 2째주 화요일

각 학년 모임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아래 학년 대표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2학년 대표	김정화	(201) 767-1215	Robert Kim	ATCS 16
11학년 대표	천혜숙	(201) 403-6336	Emily Choi	ACAHA 17
10학년 대표	김윤진	(201) 519-7352	Boyoung Hwang	ABF 18
9학년 대표	Sandy Kim	(201) 452-5956	Jeremy Kim	AAST 19

회계보고

♣ 회비 납부 안내

KPPO연회비는 각 가정당 \$40이며 버겐아카데미 PPO 회비와는 별도이며, KPPO가 참여하는 모든학교 행사 지원을 위한 비용과 KPPO 자체모임을 위해 사용됩니다. 연회비는 연중 내내 납부하실 수 있으며 전년도 회비도 이월 납부 가능합니다.

회비납부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 김혜균 (201-406-5497)에게 하시고, 회비를 납부하실 분들은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Payable to: BCA KPPO
보내실 주소: Hye Kyun Kim (BCA KPPO)
44 Piermont Rd. Norwood, NJ 07648

회비를 내셨는데 명단에 누락되신 분들은 회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보고

수입	이월금 (2014-2015)	\$1,711.72
	회비 (120명)	\$4,800.00
	International Dinner (41명)	\$1,230.00
	수입 총액	\$7,741.72
지출	KPPO 비품구비 및 9월 총회 비용	\$164.93
	9월 신문비용 (우표)	\$146.25
	Non-profit org. 관리 및 CHECK 프린팅 비용	\$165.13
	International Dinner 비용	\$1,147.32
	지출 총액	\$1,623.63
잔액		\$6,118.09

2015-2016 회비 납부자 명단

School Year	Academy	Student Name
2016	AAST	Sang Woo (Sang Jee) Hahn, Dong Eun (James) Kim, Jennifer (Jae Joon) Lee, Hanna Kim
	ABF	Daniel Lee, Janet Lee, Hye Ji Lim, Yuno Kim, Sarah (Jeong In) Ha
	ACAHA	Shelby Han
	AEDT	
	AMST	Aaron Kim, Jin (Sung Hyun) Yoo, Bryan (Christopher) Kim
	ATCS	Robert Kim, Joon Lee
	AVPA	Have Won Choi, Hyo Bin Im, Soo Min Kim, Hannah Ko
2017	AAST	William Chung, Jason (Justin) Jung, Adrienne Hong, Sam Lee, David Song, Laura Kang, Richard Hong, Minji Kim
	ABF	Emily Chang, Jimin Choi, Sarah Kim, Suzan Kim, Brian Lee, Ruth Park
	ACAHA	Emily Choi, Minju Kang, Yuna Chung
	AEDT	Juneseo Lee, Dennis Park
	AMST	Heejin Choi, Jennifer Jin, Bo Lee, Seonuk Kim, Yearam Yang
	ATCS	Andrew Lee, Hee Jae Chung
	AVPA	
2018	AAST	Jacqueline Cho, Su Jung Lee, Joon Ho Jung, Hyeong Min (Na Hyeon) Kim, Timothy Kim, Yoon Jee Ko, Iris (Frederick) Choi, Se Hyeon Park
	ABF	Christine Choi, Boyoung Hwang, Iris Lee, Alexander Whang
	ACAHA	Noah Chun
	AEDT	Danny Yim, Chanyoung Park, Dahyun Park, Kevin Shin, Summer Lee, Haram Jung
	AMST	Daniel Cho, Minsung Cho, Brittany Kang, Jennifer Kim, Gene Lee, Hyebin Oh, Soomin Jin
	ATCS	Jake Hyun Mo, Sumin Kim
	AVPA	Julie Ha, Caire Kwon, Olivia Kim, Ashley Lee, Julie Shin
2019	AAST	Michael Chu, Rachelle Huh, Kaitlyn Gill, Cyoon Kim, Jeremy Kim, Yongjay Kim, Harahm Park, Yena Woo
	ABF	Nahyun Lee, Charis Shin, Jun-Davinci Choi, Peter Park
	ACAHA	Wooseok Kwon, Rosa Kim, Olivia Kim, Youna Choi, April Hong
	AEDT	Hyeonwoo Kim, Jean Choi, Caitlin Byoun
	AMST	Jamie Lee, Eugene Yang, Chris Lee, Catarina Chung, Justin Yang, Dong Yeon Kim, Katerine Park, Min HO Heo, Irene Kang, Hannah Noh,
	ATCS	Ken Yun, Eunbi Baek, Brian Cho, Iris Kim, Dong Young Kim, David Son
	AVPA	William Chung, Esther Chae, Dan Young Kim, Sally Han, Grace, Kim, Hannah Hur

학부모 참여코너

질문: 나와 아이의 첫 BCA 경험 4개월?

[Before & After Bergen Academies]

성적표: All A's / A,B,C,D,F...알파벳송

엄마와 대화: 엄마, 나이키 농구화 신상

나왔어 /엄마, 이번 lab 리서치 주제를 "Eczema" 로 해볼까?

친구들과 hang out: burger 와 movie / 순두부와 노래방

집에서의 공부 방식: 공부하는 꼴을 못 봄/ 엉덩이가 의자에 정착, 떨어지지 않음

가장 가지고 싶은 것: 나이키 농구화/ 잠

-Jeremy's mom, AAST-

[BCA 삼행시]

B- 'B'를 받고 낙심했는데

C- 'C'를 받다니! 맙소사!

A- 'A'잇! 그래도 이 학교 너무 좋아! *^^*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학교에 발을 디딜 때마다, 저는 아직도 가슴이 뛰고 설렙니다.

BCA만의 특별한 기운과 공기를 병에 담아 이 학교를 지원한 수많은 학생들에게 팔아도 팔릴 것 같은 예감이 들 정도로 멋진 이 학교에서 신입생 모두가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Grace Kim's mom, AVPA-

미국에 온지 이년 육개월이 넘었습니다. 저희 딸이 호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된지 2주 만에 그 곳을 떠나왔습니다. 2월의 미국은 무지 추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였다는 것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 중 적응이 가장 빨랐던 딸아이였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의 엄마라는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에 엄마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시험을 본 후 엄마의 반응을 걱정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 엄마는 달라"하고 말하곤 했던 딸, 그 자랑스러운 엄마의 모습이 사라져갔습니다. 버겐 아카데미에서 제 딸은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날개 짓을 시작한 아이, 엄마는 간섭과 응원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줄타기가 어렵습니다. 정작 아이로부터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할 엄마라는 이름의 제가 있네요. 저는 어쩌면 딸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준이 엄마, ABF-

어둑 어둑 해가 질 무렵 스쿨 버스를 타고 돌아와 "엄마, 뭐 먹어?"... 배가 엄청 고프지만 금방 운동을 가야하니 먹는 걸 조절하는 모습이 안스럽다.

차에 타자마자 기절하여 잠든 모습, 행여 가는 길 교통 체증이라도 걸리면 조금 더 재울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 빨리 가려 조바심도 내지 않는다. 도착해서 "5분만 더 잘게" 하는 아이를 야박하게 내몰아야 할지 더 재울 지도 매번 고민한다. 버겐 아카데미에 가면 운동을 많이 포기하게 된다면, 매일이 고민이요 마음의 전쟁이다. 그래도 지가 계속 해보겠다고 하니 그냥 안스럽고 고맙고 대견하다. 학교 공부는 힘들지만 행복하게 다니는 모습이 신기하다. 어두운 빌딩 뒷 길, 뻐끔히 열린 문.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빛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본다. 나의 마음에도 가려진 빛줄기가 비추인다.

-Mom-

4개월간의 감상은 만감이 교차하여 쓰기가 어렵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싶은 구절로 대신할게요.

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
未覺池塘春草夢
階前梧葉已秋聲
朱子

주자께서 말씀하시길,
소년은 쉬이 늙으나 배움은 이루기
어려우니, 순간순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연못가의 봄 풀이 채 꿈도 깨기 전에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며 가을을 알린다.

좋은 벗들과 더불어 切磋琢磨 하는 4년간이 되기를
바라며.

-Peter 엄마. ABF-

학부모 참여코너

"친구따라 강남간다"는데 BCA는 제발 우리 아이가 친구 따라 강남을 갔으면~~ 하는 곳이었죠. 정말 입학해서 생활해보니 서로가 윈윈하게 만들고 또 자기 주위에 이렇게 많은 똘똘이, 똘순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취에 빠지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삶을 살아내야 함을 알게 하는 학교임을 부모도 느낍니다. 좋은 학교들 흔히 사립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간 학생들은 대학생활이 수월하다고 했으니 그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죠. 그리고 이 학교에 합격해서 멋진 엄마들과의 인연을 만들어 준 우리 아이들에게 새록새록 감사해서 엄마인 저도 뭐든 열심히 봉사하고 싶게 하네요. 멋진 우리 아이들과 맘들을 위하여 "건배~~짹"!!!

-William Chung's mom, AVPA Music-

뿌듯함과 불안함과 조바심과 안쓰러움. 살얼음 위를 걸었던 첫 4개월. 아이와 같이 울고 웃으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 밥 잘 먹고 많이 다독여주고 입 꼭 닫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깨닫게 된 4개월.

어려서는 눈만 마주쳐도 웃는 아이였지만 어느덧 커서 이제는 눈이 마주칠까 걱정하는 관계가 되어 서운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BCA에 합격되어 여러 타운에서 모인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아이를 보며 행복합니다. 저 또한 화통하고 재미있는 좋은 엄마들을 새롭게 만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 Mom-

비! 비실비실해도
괜찮아

씨! 씨들씨들해도
괜찮아

에이!
A만 받아오면
돼...♥

-AAST Dad-

Boastful and proud of our children we were to get the admission letter in spring,

Countless quizzes, tests and homework come home they bring,

All we moms pray for is that our children remain happy, thankful, and enjoy this testing journey to which they cling!

- 용재 Nick's mom, AAST-



I Love Bergen County Academies!

My son is so fortunate and blessed to have access to these amazing courses and teachers and have delight in learning with classmates who are bright and motivated! He will be incredibly well prepared for college, workplace and life beyond.

"Have no fear and explore your world at BCA. Enjoy every minute there! Do not push yourself to produce the type of transcript that is necessary for the brand name schools. Don't live your golden 4 years for college admission officials. Your life is bigger than that. I am so proud of you and so love you because you are my son."

I have tremendous confidence that this experience in BCA will prepare my son to excel wherever he goes.

How come we can't love BCA!

- Jeromy's mom, AAST-

KPPO NEWS 관한 의견 또는 제안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신문팀 ssk.kcs.phrc@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KPPO NEWS 12월호에 글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